

# 지상에 핀 마지막 꽃잎에 입맞춤하고 청송사과 가슴에 품어보자 18회 청송사과축제 10월 30일 막오른다



관련기사 2·3면

청송사과 한입 머금고 가을향기속으로 들어가보자.

무르익어가는 가을이다.

신선한 바람 일어나 마음 더욱 설레인다.

손잡고 가보자.

청송가는길 낙엽손짓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진다.

포근한 마음 가득하다.

18회 청송사과축제가 10월30일 막오른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사과다.

축제장에가면 웃음꽃이 핀다.

청송하늘아래 사과 향연이다.

지상에 핀 마지막 꽃잎에 입맞춤하고 청송사과 가슴에 품어보자.

더 늦기전에 말이다.

가을에는 청송사과 축제장에서 뛰놀아보자.

청송사과와 함께하는 가을은 우리의 가을이기 때문이다.



# 세계로 뻗어가는 청송사과 끝없는 飛上

(비상)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사과다. '청송사과'가 2024 대한민국대표브랜드 사과부분에서 12년 연속 대상 수상하는 성공신화 이어가고 있다. 청송사과 한입 머금고 가을향기속으로 들어가보자. 축제의 계절 전례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송. 지금 청송군은 청송사과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산소카페 청송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하고 정경한 자연을 배경으로, 청송사과의 수확철을 맞아 풍성하고 다채로운 청송사과축제를 마련했다. 윤경희(사진) 청송군수는 청송사과축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만큼 청송사과축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윤 청송군수는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와 가족 중심 콘텐츠 강화는 물론,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윤 군수는 "청송사과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제18회청송사과 축제**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주제는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다. 축제는 오는 30일 청송읍 월막리 용전천(현비암 앞)에서 축포를 터트린다. 행사는 11월 3일까지 5일간 열린다. 청송군은 이번 축제의 주제를 걸맞게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청송사과 가공품, 사과를 활용한 요리로 청송사과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계획표와 용전천 현비암 자연경관을 활용한 야간 경관조성사업이 연계된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제장을 꾸렸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축제**  
축제는 엔데믹 이후 높아진 비대면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축제로 진행된다. 온라인축제는 10월 1~11월 3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통해 청송사과축제 대표 체험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게임 4종(청송투어, 도전-사과 선별 로또, 꿀잼-사과난타, 청송퍼즐)을 온라인 게임으로 선보인다. 축제 형태를 다양화하고 축제 사진 체험을 통해 현장 축제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축제 전용 누리집에서는 축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소통을 연중 이어간다.

**■가족 중심 콘텐츠 대폭 강화**  
축제에서 가족 중심의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경북도와 함께 '가족이 행복할 축제하마담'을 개최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춰진 다양한 차례표가 마련됐다. 가족사진 인화 서비스, 사과와 과일 만들기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추가됐다. 축제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청송사과축제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한다.

**■ '청송사과 꽃줄거리 전국대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송사과 꽃줄거리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상 훈격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확보, '청송사과 꽃줄거리'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했다. 210평 규모의 청송사과, 사과 요리, 사과 가공품 등을 전시하는 사과축제 홍보관을 구축한다. 역대 사과왕 화판과 올해의 황금진 사과왕 입상작을 전시한다. 스마트 재배 시설 설치를 통해 청송사과의 역사와 선진화된 사과재배 기술은 물론 사과재배 최적지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홍보한다. 홍보와 더불어 사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청송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개발한 사과요리를 선보인다. 사과바삭볼고기, 사과퓨딩 등 청송사과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6-8종의 요리 및 디저트도 시식·판매한다.



윤경희 청송군수

올해는 특별히 사과존을 조성한다. 사과탄산수, 사과식초, 사과마스크팩, 사과 굿즈, 그리고 사과를 활용한 간식류 등을 시식·판매하는 공간을 꾸며 사과 축제의 디테로움과 다변화를 추구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차례표 구성**  
올해 축제는 청송사과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도전-사과 선별 로또, 꿀잼-사과난타와 만유인력-황금사과를 찾아라 등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계획표를 짜다. 8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청송사과 퍼레이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 기간 제27회 청송문화제, 시니어 한마당, 건강제조 경연대회, 내고장 청송 알기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소공연장 프로그램으로는 사과 올림픽 3종, 청송 끝드벨, 청송군민이 구성하는 재능기부공연 등이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임금부 압송 시연, 제3회 청송황금사과 배 전국고교장사씨름대회, 제23회 경북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등 특별 행사도 있다. 사과-사과즙-사과떡 시식·판매와 무료 차 시음 등의 상설 행사도 마련했다. 청송사과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즐거거리,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

**■최고의 관람객 편의 증진**  
축제장 편의시설도 크게 개선했다. 지난해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확충을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축제 입점 부스의 평가시스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 부스 운영의 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

**■청송사과 유래**  
청송사과는 1924년 독립운동가이며 농촌운동가이자 종교인인 밀양인 박치환 장로가 현서면 덕계리에 사과 묘목을 들여와 재배를 시작한 것이 계기다.

청송지역에 본격적으로 사과를 재배·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이다. 안덕면 복리에 살았던 신인수라는 라는 사람으로 일찍이 일본 아오모리현의 어느 레코드 회사에 취직하고 있을 때 회사 근처 과수원을 지나다가 처음으로 사과를 접하게 됐다. 사과에 매료돼 사과재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1927년 귀국할 때 600여 주의 묘목을 구입, 안덕면 복동교회터 인근 5000평 규모의 밭에 사과를 재배하면서 부터라고 전해진다.

**■청송사과 특징**  
청송군은 산림이 82%를 차지하는 산간지다.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지닌 고장이다. 주생산지가 해발 250m 이상, 생육기간중의 일교차가 평균 13°C로 매우 크며, 해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가 교차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사과재배의 최적지다. 군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키낮은 사과대목(M9)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 가장 많이 보급, 고품질 사과생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청송사과는 껍도 및 퇴비를 많이 사용한 건강한 토양에서 만들어진다. 청송사과는 농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농가별 처방에 의한 저농약 재배로 곱질째 먹는 사과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사과의 고른 작과를 위한 수분용 머리뿔가위별 방식·반사 필름 피복 등의 앞선 재배기술과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생산되다. 전국 어느 고장 사과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산미가 사과의 맛을 높여 주며, 과즙이 많아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 명품사과로 알려져 있다.

**■청송사과 맛 비결**  
청송사과 맛의 비결은 일교차에 있다. 청송사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13°C가 넘는 해발 250m의 산지에서 재배된다.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커지면 사과는 본능적으로 다음 세

대를 위해 영양분을 저장한다. 기온차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낮과 밤 동안 사과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활동을 반복, 과육은 더 단단해지고 단맛은 강해진다. 일교차가 크다가 해서 무조건 맛있는 사과가 수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는 청송군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사과재배 지식과 부단한 기술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한 몫했다. 군은 청송사과를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기 위해 △1994년 '청송사과' 상표 등록 △2017년 특허청 '황금진' 청송사과 브랜드 상표등록 △2020년 군수가 보장하는 '청송사과 품질 보증제 시행' △2023년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 제113호 최종 등록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었다. 품질개선을 위한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고밀식·다축형 미래형 과원 묘목비 지원, 과원미세살수장치 지원, 저품위 청송사과 격리지역을 시행했다.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청송사과를 공급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대도시 청송사과 홍보 행사,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 청송사과 유통센터 시설개선 시행으로 사과팔기 편한 청송사과 유통망을 구축했다.

**■청송사과 재배 혁신**  
군은 대한민국 명품사과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는다. 매년 다양한 재배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개발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은 곱질은 밝은 황금색을 띤다. 14브릭스(Brix) 내외의 당도로 탄생한 고품질 사과로 소비자들에게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청송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황금사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청송읍 송생리에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황금사과 기술혁신관' 내 황금사과 표준재배매뉴얼 제작 및 데이터 수집 과제 수행,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기상·병해충 통합 관제실 구축,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종묘 연구실·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청송사과 미래 100년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 수확 선별 청송사과, 2년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윤병문 기자





건강체조 경연대회



꿀꺽 사과 난타



사과 올림픽 3종



음면체험부스



전국고교장사 씨름대회



청송사과 꽃줄역



(청송군, 용전천 현비암변에 섰다리 설치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  
 2024. 10. 30. (수) - 11. 03. (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주최 / 주관 :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축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



황금사과를 찾아라



청송군, 용전천 현비암변에 섰다리 설치



청송군, 용전천 현비암변에 섰다리 설치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4

## 대구가스판매업조합, 달서구 성품 전달

대구 달서구가 지난 21일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0대를 기탁받았다.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철저한 가스

안전관리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스레인지 10대를 후원했으며, 각 가정에 무상설치 후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이미호 상근이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행정통합+신공항' 대응... 맞춤형 교통망 추진

동서축 철도 전무한 실정 보완 TK 외곽 순환 열차 운영 계획 총 485km 2조 4천억원 사업비 5개 철도노선 연말 개통 앞뒤

경북도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도로분야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도청과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도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철도망은 전국 97개 노선 4138km 중 18%인 11개 노선 745km에 이르며, 경제성장을 가져온 남북축 위주 철도

가 발전했지만, 동서축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대구 경북대순환철도와 신공항순환철도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는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구간과 봉화과 울진을 연결하는 선로를 확보해 기존 노선과 함께 대구와 경북 외곽을 크게 순환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485.5km에 2조44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공항순환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서대구~의성 구간에 선로를 확보하고 기존 중앙선과 연계해 서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구간에 광역급행열차를 운영해 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게 된다.

총연장 162.5km에 3조191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조속

히 완성한다는 목표로 도로 분야 핵심사업으로 동서 4개, 남북 6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 10축, 동서 10축, 방사 순환 6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남북 4개 축과 동서 3개 축이 경북에 놓여 있다.

남북 핵심사업은 남북 7축 김천~낙동 간(확장), 남북 8축 군위~서안동 간(확장), 대구 읍내~군위 간(확장), 남북 9축 영천~양구 간, 남북 10축 영덕~삼척 간, 신규 발굴 노선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6개 사업이다

동서 핵심사업은 동서 3축 성주~대구 간, 동서 3축 지선 기계~신항만 간, 동서 4축 지선 구미~군위 간, 신규 발굴 노선인 신공항~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4개 사업이다.

이중 성주~대구 간,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며 읍내~군위 간 고

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시켜 조속히 도로망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또 중장기 과제인 오송~안동, 김천~신공항,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대구~포항 간 광역철도 등 21개 노선 2192km에 42조7592억원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성IC~신공항, 성주~군위 고속도로 등 10개 사업 701.5km 34조6563억원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철도 및 도로망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메가시티 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영남권 대순환 철도망은 진주~거제~가덕도~부산~울산을 경북과 연결해 영남권을 크게 순환

하는 계획으로 520.4km에 16조8609억원이 투입되는 대구모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현재 도민의 숙원인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구미~경산), 중앙선(도담~영천) 5개 철도노선에 11조104억원을 투입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국비 1821억원 확보,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이 이뤄지면서 도로 및 철도망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배운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2030년 신공항 시대를 열기 위해 맞춤형 철도 및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道, 시군 협력 기반 거점형 공모 다수 선정

행안부 공모 2건 총 88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50억

경북도가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받는다.

지난 9월 5일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8억 원에 이어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총 88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세워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이 경북 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

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4층 건물 3~4층에 14실로, 1~2층에는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과 함께 들어서 국내 최초로 임신과 출산에서 양육까지 한번에 서비스되는 통합지원센터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서로 협력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인근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도내 및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우수 대응으로 지난 9월 25일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이 대상', 10월 10일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성용 기자

## 대구 외국 자유관광객 맞춤 관광책자 발간

지하철 등 이용 관광 가이드북 오프라인·온라인 앱 통해 홍보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분부는 대구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광안내 책자 '두 바퀴로 대구 한바퀴'를 새롭게 발간했다.

대구 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를 찾는 국내 관광객의 약 97%(2023년), 외국인 관광객의 약 71%(2019년)가 개별자유여행객(ITI)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접 여행 계획을 세우고, 현지 이동수단을 이용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고 있다.

대구시와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개별자유여행객의 여행 편의성과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과 퍼스널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를 이용한 대구 여행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두 바퀴로 대구 한바퀴'는 2년 전 처음 발간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어왔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군위 관광지(삼촌석굴, 한바마을, 화변역,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유원 등) 및 시티투어를 이용한 군위 여행코스 등을 추가해 도심관광은 물론 자연경관까지 대구를 탐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이드북은 크게 6가지 테마(골목, 여가, 역사, 미식, 문화, 공원)로 구성돼 있고, 지하철과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한 추천 경로와 이동 소요시간, 그리고 관광지별 설명과 이미지, 접근방법 등의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된 가이드북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관광안내소, 지하철 역사 등 관광지 접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관광안내 홈페이지인 '대구트립로드', 대구여행 필수 앱 '대구트립' 등 온라인 매체에서도 가이드북을 볼 수 있다. 황태용 기자



## 미래 바꿀 최고 혁신기술 대구에 모였다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 국내 463개 기업 기술 전시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 eXpo 2024, 이하 FIX 2024)'가 23일 엑스코에서 개막해, 혁신기술 대축제와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모타니 다츠노리 히로시마 시의회 의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라파엘 하르프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조조 플로레스 PNP 공동창립자, 스티브 텀바 존슨 뉴욕 타임스 인터내셔널 사장 및 삼성, 현대, LG, 기아,

SKT 등 대기업 관계자까지 100여 명의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과 함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Cybertruck)', 현대모비스의 e코너시스템이 장착된 실증차 '모비온(MOBION)', 로멜라 연구소의 차세대 이족 보행로봇 '아르테미스(ARTEMIS)'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463개 기업 2071부스)의 혁신기술 전시가 펼쳐졌다.

오후에는 이상엽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고객 중심 디자인'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 LG전자 이상용 연구소장 및 UCLA 테니스홍 교수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해 혁신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참관객을 위한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도 이어졌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타 지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대구국가산단·수성알파시티·금호위더폴리스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와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다"며, "혁신기술 대축제 'FIX 2024'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기술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道교육청 '수능 마무리 4주 프로젝트' 실시

진학지원단 제작 학습전략 배포 도내 우수 교사 출제 모의 평가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4주 앞두고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을 돕기 위한 '수능 마무리 4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D-30 학습전략 안내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실시 △도내 우수 교사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의예과 정원 증원 이슈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화로 인해 올해 수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수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쉽게 출제된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마무리 학습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경북교육청 진학지원단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D-30일 학습전략'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전략서는 남은 4주 동안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수능 시험과 동일한 학습 계획, 주별 학습전략, 건강 관리법 등을



담고 있다. 또 수능 당일 필수 유의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내 우수 교사 33명이 직접 출제한 '대박 예감 경북 모의평가' 2회를 23일 도내 전체 일 반고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완벽한 실전 연습을 지원한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경영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 자원활용 주저...영덕 대표 '예술축제' 열린다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26일 부터 9일간 각종 행사  
'영덕 편박스 레이스' 예정  
동호회 등 약 400여명 참여



영덕군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인 2024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가 오는 26일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주최로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개막 퍼레이드는 썬라이즈 퍼레이드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한 지역 주민, 9개읍면 풍물단과 오십천 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푸른꿈아동센터 등 지역 아동들, 영덕생활문화동호회 등 약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각자 개성 있는 분장과 복색을 갖추고 퍼포먼스를 하며 영덕읍 영덕교육지원정을 출발, 읍내 중앙로를 지나 덕곡천까지 약 40분간 행진하며 올해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의 시작을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게 된다.

개막 퍼레이드 이후에는 덕곡천에선 DJ 페스티벌과 랜덤 플레이 댄스를 비롯,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아울러 생활문화화재 선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하게 된다.

올해 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는 개막 퍼레이드

외에도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9일간 다채롭게 펼쳐진다.

업사이클링아트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학교, 사회단체, 마을 주민들과 전문 예술가 등 500여 명이 직접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덕곡천 천변 일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다.

그 외에도 업사이클링 실크스크린, 도우 만들기, 소원등대 만들기, 에코백 제작 등 환경 보호를 주제로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매일

열린다.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푸드트럭과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나눔장터인 영덕(아)바다플리마켓도 개최된다.

올해도 재활용품을 만든 무동력 자동차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영덕 편박스 레이스가 11월 2일(전시)과 3일(본선)에 열릴 예정이다. 영덕야성초 옆 언덕에서 펼쳐지는 이 자동차 대회는 재활용이 아닌 '재활용'이란 의미인 '업사이클링'의 정체

성을 반영한 특별한 행사로 전국에서 신청한 18개 팀이 각자 제작한 기발한 자동차로 경연을 벌이게 된다.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는 26일 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덕곡천 일원에서 펼쳐지며,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ydc.org>) 또는 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홈페이지(<https://www.yuaf.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영천시 장학금 기탁 이어져

22일 한국생활개선 영천시연합회에서 100만원, 신봉섭 씨가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 장학회에 기탁했다.

한국생활개선 영천시연합회는 4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의 주역인 여성의 잠재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22일 '함께 여는 농업·농촌의 미래, 생활개선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영천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정옥 회장은 "회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영천의 인재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울진군 죽변면, 반찬 봉사

울진군 죽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태지, 황미갑)는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마음담은 김치·반찬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마음담은 김치·반찬지원 사업은 한울원자력본부 지원으로 매월 1회 반찬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는 불고기, 매추리곤약조림, 두부, 바나나 등을 준비하였다.

황미갑 민간위원장은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이웃을 보니 힘이 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영양읍, 환경개선 지원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모아행복고급연금사업'의 영양읍 특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방부수로 고품질이 뒤따라 집안이 엉망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김OO 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붕덮이췌우기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김OO가구는 그동안 집안 노후와 누수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에도 해당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로 영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 포항시 내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마무리

89개 AI·빅데이터 사업 발굴  
스마트팜·인도어팜 등 계획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자치행정국, 남·북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에 접목 가능한 AI·빅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첨단지식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체 307개의 신규사업 중 89개에 달하는 AI·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시는 농업인 인구의 고령화, 기후 위기 등으로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확산이 빠르게 요구되는 농·수산업 분야에서 스마트팜 및 인도어팜, 스마트 양식 등을 폭넓게 확산할 계획

이다.

또한 건설 교통, 상·하수도, 환경관리 분야에도 안정적인 자원 관리와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AI 교통안전시스템, AI 기반 물관리 플랫폼, 환경종합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부서별 신규 AI 사업을 컨트롤 할 총괄 조직을 마련해 유사·중복된 사업은 플랫폼을 만들어 통합해서 추진하고 대시민 서비스가 즉시 가능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디지털 등 신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오는 2026년 연말 준공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아젠다를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회의(가칭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던 특례보증을 올해 1,114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단단한 포항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구룡포 일원으로 부지가 선정된 추모공원은 구룡포를 넘어 호미반도 전역을 관광 특구화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즉각 반영하고 전 부서가 서로 연계·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보고로 현안을 살펴보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업무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혁신 거점 도시가 되도록 민·산·학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확산하고 첨단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청송, 객주문학관 글짓기 대회

청송군은 지난 18일 객주문학관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객주문학관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청송지회 주관으로, 청송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감수성 발달과 재능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객주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는 총 240명(글짓기 140, 그림그리기 100)의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원하는 부문(글짓기, 그림그리기)에 대한 작품을 제출했다. 글짓기 부문 시제는 당일 발표(초등·남영·가죽, 중·고등부·친구·그림)되었으며, 그림그리기는 자유주제로 진행했다.

오후 시상식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각 부문별로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등이 시상되었는데, 글짓기 부문 대상은 권한별(파천초 4)과 황서현(청송고 3), 그림그리기 부문 대상은 강하희(진보초 4)와 김동규(청송고 3)에게 수여되었다.

윤용찬 기자

## 영덕군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소통의 날 행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노력  
정보시스템 활용 대면 교육 요청



김광열 영덕군수는 관내 요양기관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양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2일 영덕군가족센터에서 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7명을 만나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영덕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사외복지 시설정보시스템(W4C) 활용을 위한 대면 교육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안정적인 노후가 있는 행복한 영덕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요양복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적극 검토해 수당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요청하신 사항 중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관련 부서에 지시해 순발력 있게 진행하고 제도적 고려나 준비가 필요한 것들은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여은 기자

## 창의적인 신라 창작 스토리 찾는다

경주, 문화 활용 스토리 공모  
공모전 24~31일까지 접수

경주시가 신라문화제와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활용할 창작 스토리 발굴을 위해 '2024 신라 스토리 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공연, 영상(웹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순수 창작 스토리다. 출품은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또한 출품 후 전자우편 수신 여부를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73)로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는 △작품명(1쪽) △작품 개요(1쪽 이내) △등장인물 소개(2쪽 이내) △시놉시스(최대 15쪽) 등 제출양식과 분량을 맞춰 출품해야 한다.

시놉시스는 기·승·전·결 구조와 시놉시스(이야기 덩어리) 구분이 있는 산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hwp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글씨체, 글씨 크기, 여백 등 정해진 규격을 따라야

한다. 규격은 공모문을 참조하면 된다.

출품 시 개인정보는 표지 외에는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표절 검사(이피킬라)를 거쳐 표절률이 15% 이상일 경우 수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독창성(소재·캐릭터의 참신성) △완성도(주제·어휘력·구성력) △시상성(대중성) △사업화 가능성(콘텐츠 제작 가능성) △분야 확장성(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수상작은 다음달 12일 발표되며, △대상(1편)은 경주시장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1편)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1편)은 상금 200만원 이 수여된다.

수상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업화 진행될 경우 경주시와 3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환수된다.

윤용찬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출산율 2.35명의 비밀 '솜솜돌봄사업' 주목

청도, 농촌지역 성공적 모델 제시  
2개 자생돌봄공동체 6개소 확대  
200명 회원 참여 郡 활력 이끌어

청도군은 오는 26일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출산율 2.35명의 비밀은? 솜솜돌봄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농촌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 선정 사업인 청도 솜솜돌봄프로젝트, 무쳐야 산다는 품앗이 공동 육아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단 2개소였던 자생돌봄공동체가 6개소로 확대되고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여 청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회원 가구당 평균 2.35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날 발표를 맡은 사회적기업 ㈜다로리인 서삼열 대표는 그간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성과를 공유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도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 돌봄공동체들이 운영하는 △청도 로컬푸드 부스에서는 다화용기 치잠 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색 먹거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며, △커피키즈(키즈) 셀러단에서는 지역 아이들이 알뜰시장을 운영하며 수익금은 전액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썬캐처, 달고나, 키팅 만들기, 그림책 팝업



스토어, 삼촌 오락실, 캐리커처 등 로컬 크리에이티브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체험 부스를 온 가족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공유회가 함께

돌봄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어,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지속 가능한 희망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은은 기자



김천시민, 시상금 성금 기탁

김천시 지좌동행정복지센터에 지난 15일 '2024 김천시민체육대회 시민노래자랑에 출전하여 1등을 수상한 김홍자님께서 방문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해 시상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2024 김천시민체육대회 시민노래자랑에서 읍면동이 경합해 수상한 성금이며,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배정화 지좌동장은 "은정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홍자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자는 평소 지좌동행정복지센터 취미 교실 및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며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



낙동강 도시문화지원 포럼

지난 18일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2024 낙동강 도시문화지원 연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 도시의 문화도시 관계자와 문화-예술-관광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현시용 칠곡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사업본부장이 '문화도시 칠곡 사업 현황과 지역 간 협력 과제'를 발표했고 김병수 달성문화도시센터장이 '낙동강 자원연계 문화교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경산, 아시아-대양주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큰 성과'

아시아·대양주 무역사절단 활동  
MOU 27건, 3008만 달러 성과  
해외판로 개척·수출 경쟁력 강화

경산시는 14~20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파견된 아시아-대양주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에서 85건, 9,49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계약 및 MOU 27건, 3008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다. 1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39건, 4744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계약 및 MOU 14건, 1,460만 달러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18일 호주(시드니) 수출상담회에서는 46건, 4,746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MOU 13건, 1,548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경산시장 조현일과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안태영을 공동단장으로 말레이시아와 호주에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종합무역사절

단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경산시는 두나라에서 다양한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과 상담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호주는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산시의 우수한 제품들이 호주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말레이시아-호주 수출상담회에서 경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기업들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해외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중소기업들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항공운임(편도), 시장조사, 바이어 섭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성주형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진행

총 163개 농가 대상 시범 조성  
농업인 150명 대상으로 교육

성주군은 22일 성주읍외 스마트팜 운영 및 관심 있는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성주형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3개 농가를 대상으로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원예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정분야 보조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참외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성주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팜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생리 교육, 성주형 스마트팜 활용요령 및 사례 공유, 스마트팜 정비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육은 경북농업기술원의 이지은 연구사가 환경관리 및 작물생리에 대해 강의하였고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참외기술팀장이 성주읍외 스마트팜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내 스마트팜 설치업체가 참여해 각종 장비 설명회와 비닐사기 대처요령 교육을 진행했다.

도재훈 기자

## 고령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령군은 22일 고령군민체육관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과 고령소방서·고령경찰서, 의용소방대,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점, 달성KT 지점 등 6개 기관·단체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지진·전기화재와 건물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해 △저체 소방대의 중동 대응 △상상화보 및 전파 △통합연계훈련 △시설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 단계별 사고 수습 대응 체계를 총괄 점검했다.

배명백 기자

##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 종사자 워크숍 개최

고객서비스 교육 통한 소통관리  
예방적 복지 운영·돌봄 역량 강화

구미시에서는 지난 22일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5개 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5개 기관 종사자의 CS(고객서비스) 교육을 통한 어르신과의 소통관리, 예방적 복지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적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위해 재가노인서비스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가노인 750명에 대한 사례관리, 맞춤형돌봄 대상자 3,850명에 대한 인부, 가사 지원을 통해 '안전 구미'를 선도하고 있다.

이한연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안전·안부 위주의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대상



자의 전반적인 욕구를 수렴하여 지원하는 적극적인 돌봄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종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재가노인복지협회는 5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성심, 강동, 구미, 금오, 은빛)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된 위기 노인의 장기요양시설로의 진입을 막고 적절한 맞춤형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힘쓰고 있다.

송영주 기자

**활한 고령! 김천 고령!**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향군



###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MG안동새마을금고 기부 동참

MG안동새마을금고는 22일 안동시 옥동, 평화동, 송화동, 강남동, 대화동 총 5곳에 각 6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기부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활동은 매년 개최하는 사랑의 줌도리 쌀 전달과는 별도의 사회기부 활동이다.

안동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비롯해 '김장 나눔 행사',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체육대회 잔치' 등 지역사회환원 활동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금을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다.



상주 계림동 부녀회, 반찬 나눔

상주시 계림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22일, 기동기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부녀회원 1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육개장, 두부무침, 열무김치, 멸치볶음 등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어 각 마을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장보기, 반찬배달 등에 힘을 보탰다.

채인기 계림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새마을부녀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계림동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성 안계 주부모임, 환경 봉사

의성군 안계면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은 21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맞이 소 재지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내고장 안계면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 환경정비가 미흡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2개 단체는 5개 조를 구역별로 나누어 소제지, 도로변, 주차장 등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정비 활동 및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이 필요한 만큼 무단투기 금지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 70년 한국 사랑... '두봉' 주교 삶 조명

의성군 기획 두봉 레나도 주교 안동 MBC 일대기 폭넓은 취재 24일 목요일 밤 9시 방송 전파 연말에 전국으로 방송할 계획

의성군은 종교를 넘어 이 시대의 사표가 되고 있는 두봉(Rene Dupont) 주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인 두봉 주교"가 24일 목요일 밤 9시, 안동 MBC와 안동 MBC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dmbcplus)을 통해 동시에 방송된다.

"한국인 두봉 주교"는 의성군이 기획하였으며 지역 '작은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두봉 레나도 주교의 일대기를 안동 MBC가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폭넓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담은 감동적인 특집 다큐멘터리다.

두봉 주교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가톨릭 선교사로 한국전쟁 직후 1954년 한국에 파견되어 천주교 안동교구 제1대 교구장을 지냈고, 은퇴 이후에는 성당이 없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왔고, 지금도 각종 강연 일정에다 힘들고 소외된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봉 주교는 한국에서 70년 동안 가장 낙후되고 보수적인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농민 사목을 하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령을 당하는 등 어두운 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맞아왔지만, 늘



사회적 약자의 편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명인 '기쁘고 떳떳하게'를 실천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평생을 가난한 삶으로 일관해 온 두봉 주교의 일상과 유언장을 최초로 공개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안동 가톨릭농민회 사건' 이른바 '오원춘 사건'의 주인공 오원춘 씨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나와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한다. 또 두봉 주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가족사와 파리외방전교회를 비롯해 '봉양 두 씨'의 시조가 된 사연, 일제강점기 명맥이 끊겼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복원 과정, 대전 성심당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 계기, 아동작가 구관성 선생과의 교류 등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도 소개한다.

김주수의 의성군수는 "두봉 주교는 누구보다도 강한 지도자로, 따뜻한 성직자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두봉 주교를 통해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북대구에 이어 연말에는 전국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 봉화,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공모 선정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조성 봉화읍 등 5개 읍면 온실 구축

봉화군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시군전략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 시군에서 주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 봉화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 10농가, 24ha 면적에 화훼 재배 온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봉화군에서는 58개 농가가 20ha 시설에서 거베라, 리시안서스, 백합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군은 고품질 화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배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영농교육, 시설지원 보조사업 등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으로 봉화군 화훼 재배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 휴천1동, 저소득층 후원

영주시 휴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2일, 관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후원금 62만 6000원을 휴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19일 열린 '제2회 휴천1동 가을소리 음악회'에서 음악회와 함께 바자회 및 먹거리부스를 운영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을 휴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신호철 위원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휴천1동 가을소리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바자회와 먹거리 부스 운영 시 많은 주민들이 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휴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원당천 환경정비, 어버이날 감사잔치 개최, 원당천 걷기대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조성과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상기 기자

##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 재능기부 과학강연 진행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공모사업 15회째 이어져 온 기부 과학강연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이 26일 14시에 '10월의 하늘-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강연'을 개최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공모사업의 진행도서관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강연은, 과학과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내용으로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성기 부교수의 "나도 분자 만들 수 있다"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조문성 조교수의 "친환경 항공기 개발"을 주제로 어린이와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선보인다.

'10월의 하늘'은 지난 2010년 정재승 KAIST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해 올해로 15회째 이어져 온 기부 과학강연으로, 올해는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50개 지역 도서관에서 동시에 강연이 열린다.

지나 10월 14일부터 3일간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 및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하게 되는 이번 강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10월의 하늘 강연을 통해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더 큰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 054-840-3902)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주 기자

## 상주농기센터,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 운영

1만원 ↑ 구매 고객 사은품 3만원 ↑ 고객 특별 이벤트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27일까지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정보화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제23회 국화전시회와 연계하여

정보화농업인들에게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농부시장은 사과, 포도, 건대추, 배, 배추, 와인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며, 현장 시식 및 구매 촉진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는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2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노인교실 수강생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노인대학별 장기자랑 및 문화공연 순으로 노인대학생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는 화합마당으로 치러졌다.

하상선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장은 "제16회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신한국 문경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예천군 '제30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경북도내 일반부 19팀 참여 포항문화원 풍물단 장원 영예

예천군은 22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내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제30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가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와 예천문화원이 주관했으며, 경북도내 일반부 19팀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예천군에서는 '예천흑응풍물단'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으며, 경연 결과 포항문화원 너나들이풍물단이 장원의 영예를 안았고, 의성문화원 안평도바기풍물단과 구미문화원풍물단이 차상을, '예천흑응풍물단' 등이 차하를 수상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물씬 배어 있는 고유한



풍물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예천군 전통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풍물대축제는 전통 민속놀이인 풍물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함으로써 문화 경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도정 추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명주 기자





# 행복한 동행 영천시의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24. 10. 7. (월) ~ 11. 5. (화) 30일간
- 감사기간: 2024. 11. 26. (화) ~ 12. 2. (월) - 예정
- 제보대상: 시정 전반(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사항 등)
- 제보방법: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stk0215@korea.kr)



시민의 소중한 바람을 담아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